

목회자 칼빈 2

「기독교 강요」의 출간

칼빈이 그의 유명한 작품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쓰게 된 기본적인 동기는 프랑스 신자들의 상황이었다. 이신칭의, 은혜만으로, 성경만으로 등의 새로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강해지는 프랑스와 1세의 핍박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칼빈은 이들을 이단과 반란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론하기 위해 변증 및 교리교육서로서 「기독교 강요」 썼다. (1535년 재세레파의 도시 뮌스터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과격주의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라 프랑스에서도 개신교도들의 적(敵)은 개신교도들을 국가모반 혐의로 기소하고 있었다. 당시 상황에서 반란 혐의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였다.)

칼빈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작은 책에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교리교육서)을 요약설명하고, 서문을 프랑스와 1세에게 씌으로써 이 책이 그에게 헌정하는 변증서임을 밝혔다. 잠시 핍박이 그친 틈을 타 누와이옹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한 마지막 길에 오르던 1536년 3월 바젤에서 이 책이 출판되었다. 개신교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칼빈은 프랑스 종교난민들이 모여 있는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네바를 통과해야 했다. 칼빈은 무슨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제네바로 향했다. 제네바는 작은 도시국가이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 위치가 대단히 중요했다. 15세기까지는 상업적으로 무역교차로 역할을 했으며, 1520년대에는 개신교와 가톨릭 세력이 서로 끌어당기는 정치적인 지역이 되었다. 제네바 사람들은 1528년에 독립을 얻기 위해 그들의 주교를 거부했다.

막 개신교로 전환한 도시 베른은 설교하고자 제네바로 떠난 윌리엄 파렐(프랑스 북음운동의 멤버였음)을 지원했다. 몇 년간의 각고 끝에 1536년 5월에 파렐과 피에르 비레는 제네바 시민들이 “복음을 따르기”로 투표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다. 당시 스위스의 북쪽과 동쪽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 주들이 위협스럽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른과 동맹이 제네바의 주요 군사적 보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바를 스위스 연방으로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동쪽으로 사보이의 가톨릭 공작은 로마를 위해 이교도들을 복속시키려고 애쓰고 있었기에(이것은 공작가家的 아들이 권력을 회복하려고 한 것이다) 개신교로 전환한 제네바의 결정은 그 후 거의 70년간의 정치적인 위협을 초래했다. 이것이 이제는 칼빈이라는 이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제네바시와 칼빈이 인연을 맺게 될 당시의 상황이다.

제네바는 동맹관계 속에서 개신교가 되긴 했지만 완전히 개혁되거나(reformed) 혹은 개혁주의적(Reformed)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 비텐베르그, 스트라스부르, 바젤 또는 취리히와 같은 주요 개신교 도시들과 달리 제네바에는 대학교도 없었고, 그 도시 출신의 인문주의자나 고학력의 학자 같은 주요 인사도 없었다. 도시민 중심의 이 도시는 중세후기 주교 치하에서도 도시국가를 발전시켰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겨우 외교문제를 직접 다루기 시작했다. 도시의 주요 지도자들이 로마와 결별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고 신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준 학식 있는 설교자들은 제네바 바깥에서 왔는데 초기뿐만 아니라 그 후 몇 세대에 걸쳐 그랬다. 그들은 외국인이었지만 그 도시에 매우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분명 귀하게 여겨지긴 했지만 외국인일 뿐이었다.

1536년이 되었을 때 제네바에는 설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파렐은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도움이 없이 혼자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조직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나온 책자 「기독교 강요」의 저자 켈빈이야말로 바로 파렐이 원하던 사람이었다.

7월에 켈빈이 제네바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파렐은 곧바로 켈빈이 유숙하는 곳으로 찾아갔다. 사실 그때까지 켈빈은 자신이 믿음을 변호하기 위한 저술 활동에 부름을 받았으며, 목회에 대한 부르심은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파렐의 간청에서 교회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가르치는 사역에 동의했다. 그의 가르침은 곧 여러 가지 형태를 갖게 되었다.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라틴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불어로 설교하고(그의 불어는 제네바 불어와는 좀 달랐다), 교회법을 만들고 파렐의 신앙고백을 보완하여 교리교육서를 준비했다. 새로운 교회법은 제네바의 구미에 맞는 것은 아니었다. 제네바 시민들은 이미 베른에서 그들의 “대부들”이 행했던 츠빙글리식의 교회-국가 조직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주변 도시들을 식민화시키고 제네바를 사보이로부터 구하는 데 기여한 자신들의 보호자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회의 훈련과 권징을 시의원들에게 맡기는 츠빙글리식의 교회 정치를 택하는 것이 시의회에 더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교회의 권위에 눌러 어떻게든 교회의 권위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시정부 관계자들로서는 오랫동안 원하던 바였다. 기껏 가톨릭 주교를 피한 제네바 시민들이 새로운 설교자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할리 없었다. 그래서 제네바는 이 새로운 설교자들에게 교구 사역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영구적인 지위(역자주: 시민권과 같은 법적 지위)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성일, 세례단, 성찬 참여 등에 대한 논쟁은 마지막 지푸라기였으며 제네바는 결국 파렐과 켈빈 그리고 그들의 동료에게 도시를 떠나도록 명했다.

켈빈은 상처를 입었지만 또한 풀려난 느낌이었다. 바젤로 가서 저작 활동을 하려 했는데 이번에는 스트라스부르에 있던 마틴 부처가 파렐이 그랬던 것처럼 켈빈을 불렀다. 부처는, 요나 선지자의 예를 들어, 젊은 학자 켈빈을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불어권 난민들의 목사가 되도록 불렀다. 이 난민들 가운데서 켈빈은 아내이면서 동반자가 될 이데레트 드 뷔르(Idelette de Bure)를 찾았다. 드 뷔르는 당시 어린 아이 둘을 가진 과부였다. 스트라스부르에 정착한 얼마 후에 켈빈은 그의 새로운 회중들에게 예배를 위한 자료를 제공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불어로 발간한 시편찬양집이다(1539년). 이 찬송집은 이후 더 많은 시편 찬송을 포함해 편찬되었고, 다른 언어로도 번역되었다. 1562년에 이르러 시편 150편 전 편이 특별히 작곡된 곡에 붙여 찬송으로 출판되었으며, 이 시편찬송집은 개혁주의 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서가 되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보낸 1538년부터 1541년까지의 3년은 물질적인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켈빈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을 것이다. 동료 난민들의 목회자로 일하면서 부처와 같은 동료 목사들과 연합하여 시정부와 상대하고, 새롭게 시작한 인문주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자들과 교류하며 1540년대 초기에 있었던 가톨릭과 개신교간의 콜로키에 관계하기 시작하는 것을 통해 만족스러운 목회의 경험을 얻었다. 이 시기에 그는 초판의 내용을 많이 확대하여 「기독교 강요」 제2판을 출판했다 1539년. 다음 해에 그는 첫 번째 주석으로 로마서 주석을 썼다. 다른 주제들을 다루는 소논문도 썼는데 1541년에 출판된 “성찬에 관한 소논문”이 한 예다. 또한 그는 고국에 있는 동료 신자들을 위해 「기독교 강요」를 불어로 번역했다.